

제20편 - 제3신앙촌시대(제7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82회)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제성수하단);
말운론
五. 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五. 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3) 박태선하나님 화천(化天)하시다!

세상에서 영모님 이상 불쌍한 존재는 없으시다. 영모님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 가족을 다 희생시켰다”라고 종종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영모님 이상 불쌍한 존재는 없다. 처자식들을 인류를 위하여 다 희생시키신 분이다. 세상에서는 영모님의 자제들에 대해서 그 방탕한 행동을 나무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들도 다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들이었다.

영모님이 처음 하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1954년부터이다. 그때부터 영모님께서 화천하신 1990년까지 영모님께서는 거의 항상 24시간 교인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이들은 집에 와봐야 할 벌일 공간이 없었다. 교인들로 북적거리니 아버지는 자식들과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다. 이들은 자연히 밖으로 나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밤중에 들어와봐도 여전히 교인들이 북적대니 방 한편 구석에서 아무렇게나 잠을 자곤 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대로 나가버린다. 한참 부모 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재물을 떨 나이에 이들은 이렇게 떠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방랑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 영모님은 오직 하늘의 뜻을 이루시

려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이다. 격암 남사고 선생은 이와 같은 기막힌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

『歌辭總論(가사총론)』

堯舜亦不肖子息요순역불초자식 未聖豈無放蕩兒只말성기무방탕아지 世人莫睹不荒流說세인막도불황유세...

“요순같은 성군도 불초한 자식이 있었거든 말세의 성군도 어찌 방탕한 자식이 없었겠는가. 세상사람들이 다 허황된 유언비어를 말하고 있다.”

영모님은 하늘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가족들을 다 희생시켰다. 그리고 영모님은 당신의 생명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셨다. 영모님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아 출현시킨 영적 아들인 구세주께서는 영모님에게 승리제단으로 오실 것을 여러 번 간곡하게 청하셨으나 그때마다 영모님은 “그렇게 하마” 하고 말씀을 하시고도 끝내 오지 않으셨다. 건강도 좋지 않은 가운데 교인들과 일일이 새끼손가락을 거시면서 “우리 삼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라고 하시던 영모님은 삼천년성(승리제단에 계시는 구세주)을 바라다만 보시다가 세상을 하직하시고 마신다. 인류를 영생체로 구원시킬 구세주인 삼천년성을 세워 놓으시고 영모님 당신은 희생을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세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려고 광야생활 40년을 해매던 끝에 결국 모세는 모압평지 느보산에 올라 멀리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면서 숨을 거두



화천(化天)하시기 전의 영모님 모습

고만 것이다. 이때의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다.(신명기 34:1 이하)

그토록 삼천년성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시던 영모님은 기장신앙촌에서 삼천년성을 바라보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사명자로 1950년 불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시작한 영모님은 1990년 2월 7일 40년 동안의 그 파란만장한 광야생활을 청산하고 화천하신 것이다.

박태선 영모님이 숨을 거두실 때의 장면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쓸쓸했다.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사경을 헤매시는 영모님 곁에는 사모님도 없고 자녀들도 없었

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영모님은 그 파란만장한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신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운명하려는 영모님 곁에는 영모님의 조카딸인 박모 여인이 혼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영모님의 숨결이 심장이 멎는다. 급히 엠블런스를 불렀다. 엠블런스가 와서 영모님을 신고 병원으로 긴급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모님은 엠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시던 중에 숨을 거두시고 만다. 아아! 정말 성인의 수명이 어찌 이따지도 짧단 말인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론을 그토록 실감나게 증거하던 영모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未運論(말운론)』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제성수하단 林出之人怨無心.임출지인원무심.

“오호 슬프구나!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도 짧으신가! 두 감람나무로 출현하신 분이 죽는구나!”

주해: 怨無心(원무심)은 怨(원)자에서 無心(무심)즉 마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怨(원)자에서 마음을 없애면(無心) 죽을 死(사)지만 남는다.

450년전 남사고(南師古)선생은 위와같은 말을 예언해 놓았다. 남사고 선생은 박태선님이 하늘의 엄청난 사명을 받아 나타날 분임을 구체적으로 많이 예언을 해 놓았다. 박태선님의 합자와 전도관이라는 종교 명칭, 그리고 신앙촌이라는 신앙공동체의 명칭 등 박태선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다. 그리고는 “修道先出容天朴수도선출용천박을 世人不知세인부지모르거든 天崩地拆素沙立천붕지타삭소사립을 十勝人십승인에게 問疑문의하소” 라고 했다. “도를 닦아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먼저 나타날 박태선님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거든 무너진 하늘나라를 소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십승인에게 물어보시오”라는 예언이다.

박태선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사비비 교주로 매도만 할 것을 알고 미리 경고를 하면서 이분 박태선님을 반드시 알고 따라야 할 것을 예언하신 말이다.

이와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72세 밖에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그래서 격암선생은 “아!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이렇게도 짧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면서 예언해 놓은 것이다.

필자의 호소

전도관의 신앙의 동지 형제 자매 여러분! 필자가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매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모님은 육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아십니까? 또 영모님은 여러분들을 믿지를 못하시어 쇼를 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영모님의 영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쇼를 해왔는데 앞으로 계속 쇼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81.12.28축복일)”

“내가 바보놀음을 하고 나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82.4.11)”

“다 체크 해놓고 인간놀음을 한 것이다. 다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81.10.12)”

왜 영모님은 전도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쇼를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전도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관 사람들을 왜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영모님이 전도관 사람들을 생수 마시고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신 이유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영모님의 참뜻을 잘 깨달아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모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같이 걸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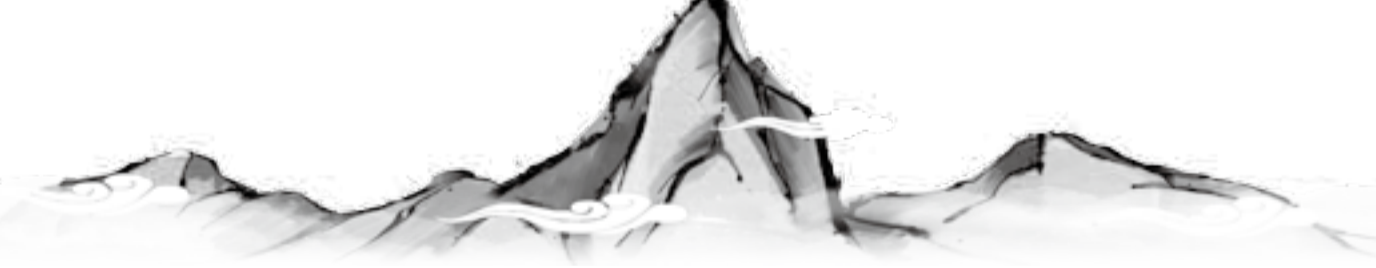
제92회

出將論(출장론)

牛蠶之村見不牛 우성지촌견불우로 人言一丈八寸 인언일대척팔촌을 恨心 한심하다
草露人生弓乙村 초로인생궁을촌을 呼天村 호천촌을 先壽後 신심후에 呼母村 호모촌을 更問問문하소 父母村부모촌을 모르거든 三人一雙弓道 삼인일쌍궁도에 至誠感天天神化 지성감천천신화로 武陵桃源 무릉도원차보자자 修道先出容天朴 수도선출용천박에 天崩地拆素沙立 천붕지타삭소사립을 靑鶴龜鹿牛腹膺 청학복처우복동이 三峰山下半月有 삼봉산하반월우로 深藏窟曲囊中世界 심장굴곡낭중세계 靈泉水 영천수가 恒流 恒류로다

소 울음소리 들리는 마을에서 소는 볼 수 없고 신전촌(信天村)을 모르니 한심하다. 초로인생들이여 궁을촌을 모르거든 호천촌(呼天村)=하나님을 부르는 마을을 먼저 찾아본 후에 호모촌(呼母村)=엄마를 부르는 마을을 다시 물어보소 소 울음소리, 소는 영적인 의미이다. 천마지우(天馬地牛)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엄마로서 역할을 한다. 그 엄마를 부르는 소리와 그분의 진리 말씀을 말한다. 부모촌(父母村)천지의 아버지가 계

감로해인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시는 마음을 모르거든 심승의 도를 지성 감천(至誠感天)으로 닦아 사람이 하나님(天神)으로 변화되는 무릉도원선경(武陵桃源 仙境)을 찾아보소 삼인일석(三人一夕)은 닦을 수(修) 자의 파자이며 쌍궁(雙弓)은 궁궁(弓弓)을 말하며 심승이 된다. 심승(十勝=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도를 닦아 먼저 나온 분은 하늘을 닦은 박(朴)씨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소사(素沙)에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의 제단을 세우게 되느니라. 청학 즉 신선이 날고 드는 우복동(牛腹洞=+)은 삼봉산 아래 반달 즉 마음 심(心)자 에 있고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굴곡이진 주머니 속의 세계와 같은 곳에서 신령한 샘물이 항상 흘러나오느니라.

靑樹古里碧山新村 청사고리벽산신촌 非山非野十勝處 비산비야십승처라 海印龍宮閉日月 해인룡궁한일월이요 木人新幕別乾坤 목인신막별건곤을 風驅惡疾雲中去 풍구악질운중거요 雨洗冤魂消外消 우세원혼소외소라 別有天地非人間 별유천지비인간이요 武陵桃源紫霞島 무릉도원자하도를

書牛鰲溪活命水 화우고계활명수는 牛姓村 우성촌에 隱潛 은잠하니 水昇火降隱妙法 수도화강은묘법을 桃源 仙境을 찾아보소 삼인일석(三人一夕)은 닦을 수(修) 자의 파자이며 쌍궁(雙弓)은 궁궁(弓弓)을 말하며 심승이 된다. 심승(十勝=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도를 닦아 먼저 나온 분은 하늘을 닦은 박(朴)씨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소사(素沙)에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의 제단을 세우게 되느니라. 청학 즉 신선이 날고 드는 우복동(牛腹洞=+)은 삼봉산 아래 반달 즉 마음 심(心)자 에 있고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굴곡이진 주머니 속의 세계와 같은 곳에서 신령한 샘물이 항상 흘러나오느니라.

활터에 세워진 푸른 정자가 있는 옛 마을이 푸른 산속의 신촌(新村=새하늘 새 땅=神村)으로 되었으니 바로 산도 들도 아닌 비산비야 십승처로다. 감로 해인이 가득한 용궁(龍宮=정도령이 좌정한 곳)은 한가로운 밝게 빛나고(日月=明) 목인(木人)이 거하시는 신의 장막(新幕=神幕)은 별천지라 악한 질병을 바람으로 몰아 구름 속으로 보내버리고 감로 해인의 단비로 원혼을 씻어 바다 밖으로 소멸시키니 인간이 아닌 신선이 사는 세계요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 자하도가 바로 여기로다. 그림 속의 소가 시내를 돌아보는 생명수(生命水)를 찾아라. 는 것이요 그 생

명수는 우성촌(牛姓村=정도령이 계신 곳)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데 지혜 없는 자가 그 속에 수도화강(水昇火降)의 묘법(妙法)이 숨겨져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하늘의 소가 밭을 가는데 이는 음전(陰田) 양전(陽田)의 영적인 밭인 심승(十勝)의 밭으로 사담칠두(문무두우성文武斗牛星) 즉 복두칠성이 짓는 참된 인간 농사이니라. 크고 위대한 미륵불이 계신 우성촌에서 일심 정성으로 수도하였더니 단비와 같은 감로 해인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리는 속에서 감로해인이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피 속의 더러운 마귀를 죽여 내일이 다 달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즉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되느니라.

盤石湧出生命水반석용출생명수로 天下人民解渴 천하인민해갈하니 弓十勝易經法 궁을십승역경법이 死中救生天恩 사중구생천은일세 畫牛鰲溪十勝法 화우고계십승법이 巽震鷄龍靑林 손진계룡청림일세 自古由來儒士 자고유래유사들이 通理者 통리자기누구누구

鷄龍鄭氏海島真人 계룡정씨해도진인 易數不通 역수불통 모르오니 十年工夫修道者 십년공부수도자들 前功可惜家懷 전공가석애처롭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천하 인민의 갈증을 해소시키니 궁을 심승의 역경법(易經法)은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니 하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림 속의 소가 시냇물(영원한 생명수)을 돌아보는 심승법을 뜻하니 손진계룡청림법을 가르킵니다. 손괘는 계(巽=닭) 진괘는 용(龍)이며 손진은 계룡이고 청림도사를 말한다. 이는 72궁 정도령이 손(巽)이며 81궁 정도령이 진(震)이다 81궁 속에 72궁이 함께 있으니 81궁은 손+진이 된다. 청림의 청(靑)은 동방갑을삼팔목에 청이며 림(林)은 양목두 나무=감람나무와 가지) 72궁 81궁을 말하고 마지막 81궁 속에 72궁이 있

니 결국 81궁이 된다. 72궁은 목토(木塊=나무토끼)이고 81궁 금구(金鳩=금 비둘기)인데 81궁 금구속에 목토가 같이 합해져 있으니 81궁이 구토(鳩兔) 합합자인(相合之人)이 되며, 따라서 81궁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정도령 미륵불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며 죽는 세상을 안 죽는 세상으로 만드는 주인공이다. 이는 강중산 선생이 말한 '내 뒤에 두 사람이 더 나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교의 선비 중에 역의 진정한 이치를 통달한 자 누구런가? 해도(海島=海隅半島=한반도)에 오신 진인인인 계룡 정도령은 역수(易數)에 통달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으니 십 년을 공부한 수도자들이 이전에 힘들게 애를 쓴 노력이 참으로 아깝고 애처롭도다. *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p>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p> <p>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p> <p>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리사리가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p>	
<p>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p> <p>홈페이지 www.victor.or.kr</p>	<p>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